“연극 통해 5·18진실 많이 알리고 싶어요”

21~22일 화순·26일 광주 공연
‘너릿재 연가’ 출연 전원주
국회공연 보고 출연 결심
5·18 때 가족 잃은 역할
사투리 익히려 대본 들고 살아

“가슴이 미어질 때마다 너릿재를 찾곤 했었다. 여기오믄 느그 아부지도 있을 것 같고 느그 민혁이도 생각나고…너릿재가 민혁이를 품어준거제.”

16일 광주문화재단 2층 창작극 ‘너릿재 연가’의 연습실. 탤런트 전원주〈사진〉씨를 비롯한 배우들의 연습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이곳에서 이번 연극에 특별출연하는 탤런트 전원주씨를 만났다.

전원주씨는 “지난 6일 국회에서 ‘너릿재연가’ 첫 공연이 있을 때 참석했다”며 “5·18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때 연극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고, 이 연극에 동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맡은 역은 크지 않은 역이지만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이에요. 역사 속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은 여인이죠. 이분을 통해서 5·18을 알았고 뜨거운 광주를 알게 됐습니다.”

화순 너릿재에 얽힌 사연을 극화한 창작극 ‘너릿재 연가’(부제 너릿재 아리랑)가 화순과 광주를 찾는다.

21일 오후 4시, 22일 오후 3시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홀에 이어 26일 오후 4시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광주와 화순을 이어주는 ‘너릿재’. 동학농민운동 때는 농민군들이 이곳에서 처형을 당했다. 해방정국 때는 화순 탄광 노조원들이 미군에 의해 희생을 당했고, 6·25 전쟁 때는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었다. 1980년 5월에는 공수부대의 만행에 맞선 시민들이 화순 탄광의 무기를 싣고 넘던 고개다.

고향의 앞산 같은 친밀한 고개지만 한국의 근현대사의 굴곡과 애환이 서린 곳이다.

‘너릿재 연가’는 이러한 너릿재를 배경으로 한 화순 출신 최경희 장군의 후손들 이야기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6·25 전쟁, 80년 오월까지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과 애환을 담았다.

전씨는 “이번 연극에서 보여줄 장면은 많지않다. 딱 두 장면이다“며 “남편 잃고 자식 잃은 과부역할이다. 지금의 나와 같은 과부역할이라 그런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사실 이 연극을 접하기 전까지 5·18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인 줄 몰랐어요. 국회에서 처음 연극을 보고, 대본을 받아 보고나니 5·18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죠. 비중이 큰 역할은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참여하는 데 의미를 두고 싶어요.”

그는 현재 5개의 연극작품에 출연중이다. “연극뿐 아니라 여기저기 강연도 다니고 있어서 바쁜 와중에 ‘너릿재연가’에 출연하게 됐어요. 이번이 세 번째 연습이자 마지막 연습이죠. 틈틈이 혼자서 대사를 외우고 연습을 하지만 상대방하고의 호흡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 연습장을 찾았어요. 그러나 무대는 나를 나타내고, 연기는 나의 전부를 보여주는 것이라 그런지 수십 년의 경력에도 여전히 긴장이 됩니다.”

전씨는 또 젊은 배우들과 함께 연극작품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이번 연극에 출연하는 배우들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인데 온몸으로 뛰고, 넘어지며 굉장히 열심히 한다”며 “함께 연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용기가 나고 활력소가 생긴다”고 말했다.

“며느리 역할을 맡은 이당금씨가 저를 많이 챙겨주고 배려해줘서 즐겁게 연습중입니다. 그래도 어려운 점이 있다면 ‘대사’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있겠지만 전라도 사투리라 대사를 외우는 게 어려워요. ‘그랫제라’ 하면서 또 다음 대사를 잊어버리기도 해요.(웃음) 서울말이면 좀 괜찮을 텐데…그래서 대본을 늘 손에 들고 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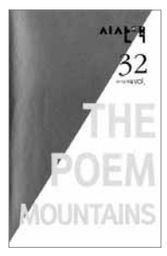
그는 마지막으로 “배우는 다른 것 다 필요없이 객석이 채워져야 힘이나고 연극 할 맛이 난다”며 “많은 분들이 관객석을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또, ‘너릿재 연가’를 통해 5·18을 모르는 분들께 그날의 진실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의 062-226-2446, 010-4190-5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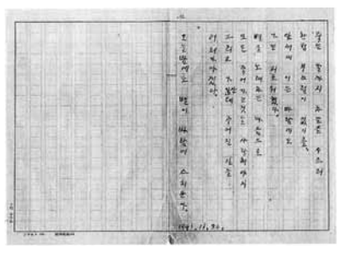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너릿재 연가’ 출연진이 연습하는 모습. 〈광주문화재단 제공〉

오늘날 ‘등불’된 청년 윤동주의 고뇌

윤동주 친필시고 조명 ‘시산맥’ 겨울호





‘서시’ 친필원고

“현대의 청년들은 찬란한 청춘의 색을 지워내고 있다. 청춘의 부스러기들은 짙은 어둠 속에 잠겨 사소하게 빛나고 있을 뿐이다. 그들에게 청년 윤동주는 이야기하고 있다. 깜깜한 밤에도 열매가 익고, 꽃이 피듯 청춘의 고뇌와 아픔이 곧 뜨거운 등불이 될 것을 말이다.”(정애진 한양대 박사과정 재학)

계간 ‘시산맥’에서 기획연재 하고 있는 ‘윤동주 시인 자전친필 시고’는 윤동주 시인의 생애와 문학을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매개로 조명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시산맥’은 겨울호(통권 32호·사진)에서 ‘새로운 길’, ‘병원’, ‘돌아와 보는 밤’, ‘太初(태초)의 아츰’, ‘看板없는 거리’ 등을 다뤘다.

곽예근(한양대 박사과정 수료) 연구자는 ‘새로운 길’에 대해 “시적 화자의 ‘새로운 길’에 대한 다짐은 과거에는 가지 않았던 길로 향하겠다는 자기 의지의 표현”이라며 “사실상 이 시편이 성인으로서의 현대시 시작(詩作)의 출발점이었다”고 평한다.

이은규 시인은 ‘병원’에 대해 “시인은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타자들의 귀환을 간절히 요청하는 방식으로 시적 자의식을 구현한다”고 평했으며, 조대한 씨는 ‘太初(태초)의 아츰’을 가리켜 “종교 시편들엔 그 믿음에 대한 질문과 고뇌, 그리고 나름의 대답이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연희전문 재학 중이던 해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看板없는 거리’에 대한 조명도 눈길을 끈다. 하빛나 씨는 “‘간판’을 조선의 상징으로 읽는다면 ‘간판없는 거리’에 가득한 ‘손님 같은 사람들’은 실향민이 되어버린 민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산맥’ 겨울호에는 전철희 평론가의 ‘페미니즘과 문학 논의에 대한 단상’과 이도헌 시사만화가의 ‘詩詩한 이야기’ 등이 수록돼 있다. 또한 제8회 시산맥작품상 후보작품인 김분홍·박남희·서윤후·이승휘·임승유 시인의 작품과 전해수 평론가의 작품론 ‘뒷모습의 세계 혹은 공간의 수사학’ 등 다양한 읽을거리가 실렸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뮤지컬 ‘달을 품은 슈퍼맨’ 연말까지 동산아트홀

“난 믿어요 날아오르죠 울지마 내동생 형아를 믿어봐 내등에 업혀 눈을 꼭 감아 마음 속으로 기도해.”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에 ‘슈퍼맨’을 위한 노래가 울려 퍼진다. 관객석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슈퍼맨이 되겠다는 내용을 담은 ‘힐링 뮤지컬’을 보러온 중·고등학생, 부모님과 청소년, 연인들로 가득 찼다.

시한부 판정, 빚쟁이에 쫓기는 청년 세입자, 지적장애가족, 그리고 달동네의 서민 생활….

뮤지컬 ‘달을 품은 슈퍼맨’은 서울 동대문과 근처 달동네를 배경으로 한다.

이야기의 중심은 윤도현, 우현 형제 가족이다. 의사의 실수로 정신연령이 7세 아이에 불과한 우현은 망토만 두르면 슈퍼맨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우현의 동생 도현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이들과 함께 달동네에 살며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는 일본어 강사 도요타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연기자의 꿈을 키워가는 배우 지망생 안경도 등장한다. 이들은 소위 말하는 ‘흙수저’다. 당장 눈앞에 밝은 미래가 그려지지는 않지만 이들 모두 선한 마음과 꿋꿋한 의지를 지니고 있다.

작품은 우현이 지적장애를 얻게 된 사연과 납치사건, 작은아들에 대한 의문의 질병진단, 써니의 밴드 멤버로 합류한 미스터리한 여인의 등장 등 여러 사건이 한데 엮여있지만, 이것들은 한편으로 웃음의 소재로 활용된다.

작은 무대를 종횡무진 하는 배우들의 에너지는 현실 속 시름을 잊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달동네 사람들의 인생살이를 엿보면서 한참을 웃다 보면 어느새 마음 한 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공연은 12월31일까지 열린다.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크리스마스는 오후 3시와 오후 7시, 일요일 오후 3시. 티켓가격 4만 원. 문의 062-360-8433. /전은재기자 ej6621@

“애들아 사자놀이하자”…‘두드리’ 광주학교서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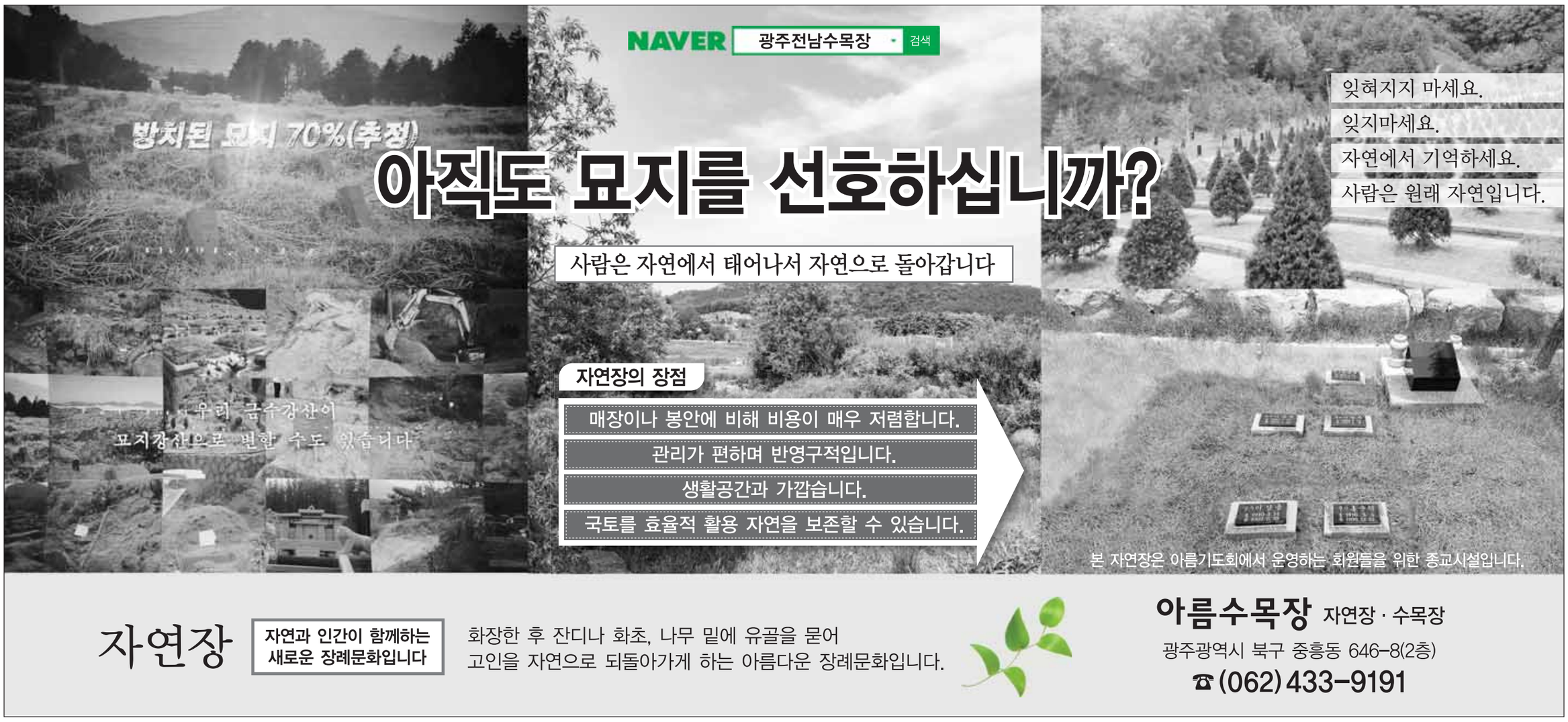
오늘의 전통문화는 다양한 예술장르와 만나 지속적으로 교섭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공연은 일회적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삶에 영향을 미친다.

예술단체 ‘전통타악연구회 두드리(대표 이시영)’가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예술 나누어 드림(Dream)’을 진행한다.

이번 ‘전통문화예술 나누어 드림(Dream)’은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2017문화예술펀딩프로젝트 만세만세 만(萬)만(滿)계에 참여해 진행한 모금활동이 토대가 됐다.

프로그램은 전통문화 공연 관람과 체험 등 2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수혜대상 및 연령 등에 따라 맞춤 공연과 체험을 진행할 계획으로 사자놀이, 설장구, 버나놀이, 사물놀이, 모듬북 공연, 열두발, 소고놀이, 상모판굿 등이 포함돼 있다.

체험은 버나돌리기, 줄공돌리기 등의 연희활동 및 상모, 채상소고 등의 타악 체험이며 사자놀이 경우 공연 중간에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두드리’ 공연모습.

공연 일정은 20일 선운초·월계초등학교, 27일 동곡초 등 3개 학교에서 실시된다. 문의 062-670-7957.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